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5 Number 2 2 2017

Tertullian

Nicolas Steno

Henry Morris

John Whitcomb

홍수 지질학 : 선한 유산

교회와 과학의 역사에서 홍수 지질학자들의 공헌은 결코 축소되어 여겨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증언을 왜곡시켜 전달하는 책과 인터넷의 웹페이지들은 만연하다. 최근 예로, 고대 지구의 기념비 (Monument to an Ancient Earth)[1] 라는 책은 전 지구적인 홍수 사건에 대해 역사 속의 작고 중요치 않은 한 사건, 고대 세계관에서 생겨난 가짜 사건, 그리고 심지어 잘못된 종교의 한 결과물 정도로 축소시키려 한다. 그러나 노아 홍수 사건은 이러한 축소된 믿음과는 다르다. 홍수 지질학자들의 다음의 공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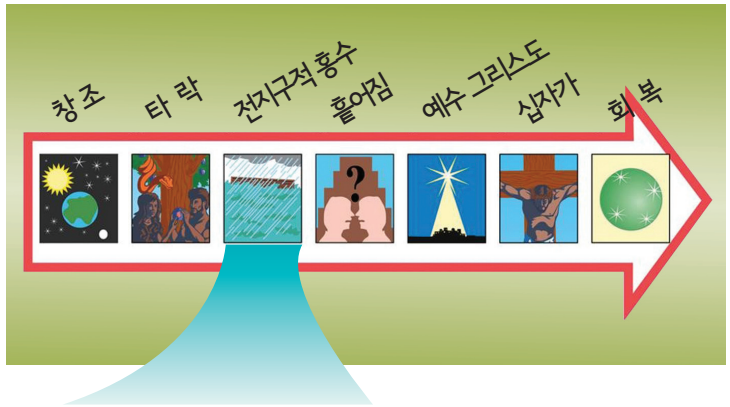
1. 홍수 지질학은 성경을 변호하는 하나의 도구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터툴리안(Tertullian)은 서기 2세기의 중요한 기독교 변증가 중 한 명으로써 성경의 홍수가 지역적인 홍수였다고 가르쳤던 플라톤 (Plato)의 주장에 대해 높은 지형에 남겨져 있는 조개화석들을 들어 반박했다.[2] 크리소스톰(Chrysostom)과 어거스틴(Augustine)은 화석에 대한 터툴리안의 관점을 공유했고,[3] 필로(Philo), 요세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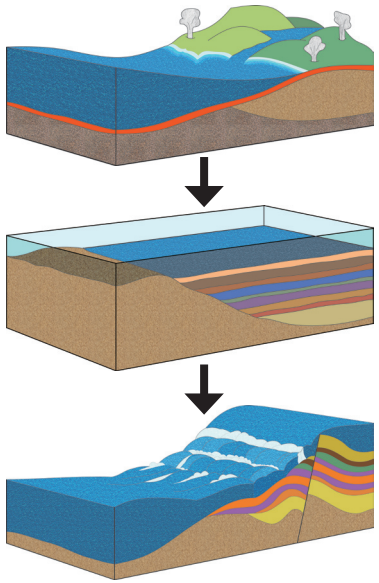
스(Josephus), 저스틴 마터(Justin Martyr), 안디옥의 데오필러스(Theophilus of Antioch),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를 포함한 초대 교회 역사 속 대부분의 위대한 사상가들도 창세기 홍수가 전 지구적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4] 창세기 홍수의 전 지구적인 사실을 반대하는 믿음은 분명히 교회 밖으로부터 유입된 것이지 교회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2. 유기물 기원인 화석[5] 1600년대 중엽에는 화석의 형성에 대해 크게 두가지 견해가 있었다.[6] (1) 아리스토텔레스의 자발적 발생(spontaneous generation), 그리고 (2) 신플라톤주의(Neoplatonism)라 불리는 신비주의(mysticism/occultism)와 유사한 견해이다.[7] 이러한 두 이교적 믿음은 전 지구적인 홍수에 대한 사실을 기피하고 자연의 동일과정설적 견해를 더욱 선호했다. 홍수 지질학자인 니콜라스 스테노(Nicolas Steno: 1638–1686)가 1669년에 화석에서 발견되는 결정 격자(crystal lattice)의 반복적인 패턴은 화석의 형태에서 보이는 디자인 또는 목적(teleology)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매우 중요한 관찰을 했는데,[8] 그의 이러한 생각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역자주: 스테노는 화석이 매몰된 생물에 광물이 들어가 암석이 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주장했으나 당시 지질학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그의 논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오랫동안 알려져 온 높은 지형의 암석층에 보존된 조개 화석의 기원이 만약 유기물(과거 살아있던 생물)이라면 이것은 "성경적 규모"의 전 지구적 홍수를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암석 지구가 물로 심판을 받았다는 기록은 당시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환영 받지 못했다.[9]

3. 한 역사만 갖는 지구 21세기에 시간의 직선적(linear)개념이 모호한 문제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과거에는 그랬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무한한 순환개념이나 신플라톤주의가 말하는 신비로운 어떤 것이라는 시간에 대한 개념도 지구가 갖는 직선적인 시간 역사의 개념을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퇴적암과 그 속에 보존된 화석이 창세기 홍수의 결과로 보게되었을 때, 창조, 홍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성취로 이어지는 연대표는 단지 "종교적인 주장"이상의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홍수 지질학은 지구 역사의 바로 그 개념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10] 그것은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의 주장이었다.

4. 광물학(mineralogy), 층서학(stratigraphy), 고생물학(paleontology)의 기초 스테노가 광물과 심지어 보석까지도 예측 불가능한 신비주의가 아





닌 자연법칙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과학으로서의 광물학이 탄생되었다.[11] 홍수 지질학이 또한 퇴적암이 쌓인 지역의 지질도를 그릴 수 있을 만큼 놀랍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만들어진 스테노의 층서학의 세 가지 원리는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지질학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다. 화석이 과거 살았던 창조물들의 남겨진 흔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동물학자들이 현존하는 생물들을 분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화석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시작되면서 고생물학이 탄생됐다. 과학의 다른 영역처럼 지질학도 사실 기독교의 토대 위에 발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창세기 대홍수는 지질학 역사에 있어서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있었다.

5. 홍수 지질학은 스테노 이후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구과학자들에게 주요한 대화 주제였다. 이 기간은 지질학 역사에 있어서 틀림없이 가장 유익하고 발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이 시기에 우드워드(Woodward), 후크(Hooke), 그리고 버크랜드(Buckland)와 같은 홍수 지질학자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큐비어(Cuvier), 세지윅(Sedgwick), 스미스(Smith), 머치슨(Murchison), 코니비어(Conybeare) 그리고 엘리 데 비우먼(Elie de Beaumont)과 같은 격변론자들의 생각과 자유로이 섞으면서 지질학 역사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 1830년 전까지 비록 오늘날처럼 "과학 대 종교"라는 약간의 논쟁이 있긴 했을지라도, 당시 홍수 지질학자들이 지질학적 데이터를 그들의 성경적인

믿음에 억지로 일치시키려 한다는 등의 비난을 받지는 않았다. 비록 과학자들마다 퇴적암 기록의 어느 부분이 창세기 대홍수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들을 가졌을 지라도 역사적 대홍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1830년 무렵, 데 마일렛(de Maillet), 뷰폰(Buffon), 라플라스(Laplace), 워너(Werner)의 계몽화된 점진주의 (Enlightened gradualism)가 허튼(Hutton), 라이엘(Lyell) 그리고 다윈(Darwin)과 같은 영국의 자연주의자들에게 들어가면서 홍수 지질학이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지만, 이것은 사실 과학적인 문제점 때문이 아니었다. 새로운 칸트의 철학(Kantian spirit)이 세상을 파멸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단지 하나의 "철학적 주제"로 치부해버린 것이다. 홍수 지질학은 결코 과학적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숨겨지도록 강요된 것이다.

6. 역사적 기독교의 부활 1960년대 초기, 지질학계에 신 격변론, "무혈혁명 (bloodless revolution)"이 일어났다. 암석 기록에서 발견된 새로운 사실들은 라이엘의 점진적 퇴적이론의 어리석음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홍수 지질학은 부활을 경험했다. 중요한 변혁은 192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창조 과학" 운동은 1961년 존 위트콤(John Whitcomb)과 헨리 모리스(Henry Morris)의 창세기 홍수(The Genesis Flood) 출간과 함께 더욱 완성되었다. 이 운동으로부터 성장한 새로운 세대의 전문적인 홍수 지질학자들은 역사적 기독교로의 귀환을 도왔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홍수 동안 행하신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새롭게 보도록 도전 받았고, 암석 속에서 그러한 증거들을 볼 수 있는 열린 눈을 갖게 되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칸트 철학으로부터 벗어나 영의 세계 뿐 아니라 물질 세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새로운 힘을 찾게 된 것이다. *–번역 / 조희천*

Bill Hoesch
M.A. Geology

〈참고〉

1. The Grand Canyon, Monument to an Ancient Earth: Can Noah's Flood Explain the Grand Canyon? by Carol Hill, Gregg Davidson, Tim Helble, & Wayne Ranney, eds. (Kregel: Grand Rapids, MI, 2016, 240 p.) 이 책에서 필자들은 홍수 지질학을 비판한다. 저자들은 모든 성경적 창조론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과학 대 종교"라는 비유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22 페이지에서 저자들은 갈리레오 재판을 사용해 당시 부패한 종교적 권위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홍수 지질학자들이 과학의 진보를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2. Martin J. S. Rudwick, The Meaning of Fossils: Episodes in the History of Palaeontology (Secon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36–37.
3. Terry Mortenson, The Great Turning Point, (Master Books: Green Forest, AR), 25.
4. 실제로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도 창세기 홍수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도 그것의 역사성을 기초로 언급했다 (마 24:37, 벧후 3:3–6). 전 지구적인 홍수 그리고 젊은 지구는 전 중세 시대 동안 합일된 관점이었다.
5. "… 홍수론자들의 일이 화석의 유기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받아들이도록 부추겼다." (Rudwick, The Meaning of Fossils, 88). 스테노가 그의 지질학적 일을 젊은 지구의 틀 안에 가두었고, 그의 전 지구적인 홍수의 주장은 단지 당시 종교적인 권위자들을 달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는 주장은 스테노와 그를 알리는 역사가들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다.
6. 높은 지형의 암석에 존재하는 화석에 대한 질문은 해수면 근처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쉽지 않다. 다빈치와 같은 사람들은 훨씬 전부터 그 화석의 기원이 살아있던 생물이라고 올바르게 인식했었다.
7. 최근 일원론 (monism)과 신 이교주의 (neo–paganism) 등을 포함하는 징후뿐 아니라 20세기 마지막 30년동안에 유행했던 "뉴에이지"의 근원
8. The Prodramus of Nicolaus Steno's Dissertation Concerning a Solid Body Enclosed by Process of Nature within a Solid (English version of the 1669 original, MacMillon: New York, 1916). "디자인 주장"은 1990년대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다.
9. 고생물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점진적인 발생이라는 믿음은 파스퇴르가 생물학에서 점진적 발생론을 제거해버린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제거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찰스 다윈에게서 다시 부활했다. 그러나 분명히 지적해야 할 점은, 오랜 지구와 지역적 홍수의 두 가지 개념은 (성경이 쓰인) 모세의 시대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에 유행했다는 것이다.
10. 역사가 파올로 로시 (Paolo Rossi)는 혁명적 생각인 "자연은 그 스스로의 역사를 갖고 있고 이러한 조개 화석은 그러한 역사의 기록 중 하나다"가 홍수 지질학 덕으로 보았다. [Paolo Rossi, The Dark Abyss of Time: The History of the Earth and the History of Nations from Hooke to Vico, transl. Lydia G. Cochran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p. 4.]. 마틴 루드윅 (Martin Rudwick)과 다른 역사가들도 로시에 동의했다.
11. 스테노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날카로운 구분은 의심없이 덴마크에서 엄격한 루터교 시절 받았던 교육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생애 말, 그의 카톨릭교와 대화했던 시기는 과학적 공헌의 끝 무렵과 비슷한 시기이다.

지구는 총알처럼 달리고

오늘날 우리는 우주선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을 볼 수 있다. 사진으로 우리가 거주하는 지구가 둥글고 지표 71% 이상이 물로 덮인 거대한 물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반경이 약6400 km이고 무게(질량)가 6×10^{24}kg로 추정한다. 이는 6조 톤 무게의 화물 차량 10억 대 분량에 해당한다. 엄청난 물덩어리 지구가 허공에 떠있다. 오늘날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하나님)는 북편하늘을 펴시며 땅(지구)을 공간에 다시며… (욥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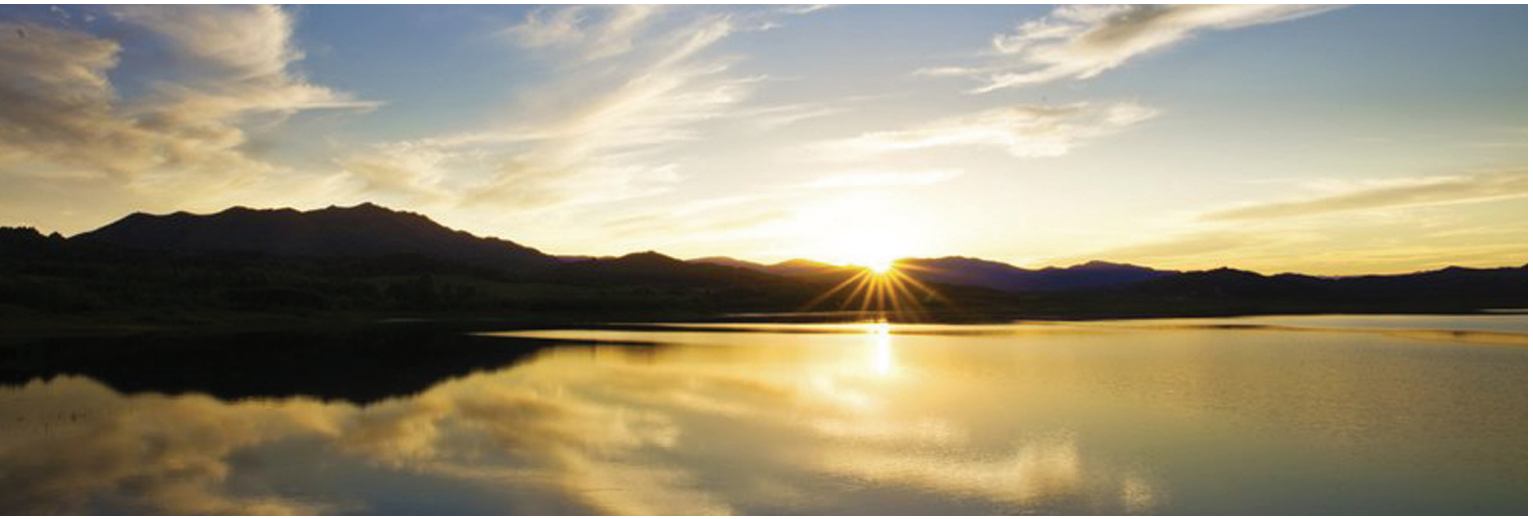
이 거대한 물덩어리 지구는 허공에 정지 상태로 떠있지 않고 스스로 돌면서 공전을 한다. 성경에는 창조 첫 날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나누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창1:5)." 이는 이미 첫 날 빛을 만드셨고 이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지구가 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구는 24시간 주기로 매 시간 15도를 스스로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공전하는 원주 속도는 초속 29.8 km이며 이는 고속 총알 보다 30배 이상 빠른 속도이다. 고속 탄환인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365일 5시간 48분 46초 동안 달려서 제자리로 돌아와 일주기를 완료한다. 이것이 바로 1년에 대한 정의이다.

한편 지구의 유일한 위성인 달(Moon)은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아 늘 한쪽 얼굴만 볼 수 있도록 조율(싱크로나이즈)되어 있다. 달이 지구를 선회하는 주기인 29.5일이 한 달(month)에 대한 정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four seasons)와 일자(day)와 연한(year)이 이루라" (창 1:14)

우주를 나가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 볼 때 표현할 수 없



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고백한다. 그들은 우주선을 타고 매90분마다 지구를 선회하면서 그 장엄함을 누구보다 실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틀란티스호 우주왕복선으로 우주 여행을 두 번이나 참여한 가드너(Guy Gardner)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지구가 기능적으로 완전하고 또 미적으로도 완벽하다. 이처럼 아름다운 행성이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 없다"고 고백하였다.[1]

우주에 가장 많은 물질은 수소이며 다음으로 헬륨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한다. 수소와 헬륨을 합치면 우주 전체 물질의 98%이고 나머지 기타 모든 원소들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우주에 있는 물질의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인 셈이다. 태양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가스체이다. 밤하늘에 볼 수 있는 소수의 태양계 행성들을 제외하면 모든 별들도 태양과 동일한 수소와 헬륨의 가스 덩어리로 받아들인다.[2-3] 그러니까 가벼운 원소인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다른 원소들은 우주에서 매우 희귀한 물질들이고 태양의 경우 무거운 원소들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 대부분 별들도 태양과 같아 지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복잡한 원소들이 다양하게 있는 행성이다. 한 마디로 지구에 있는 재료들은 매우 희귀하며 특별한 물질들이라는 것이다.

물질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는 생명 유지에 적합하도록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자전속도와 공전속도, 회전축의 기울기, 그 크기와 무게 등 수많은 요소들이 긴밀하게 조율되어 있다. 이는 물리법칙들이 서로 긴밀하고 엄격하게 맞물려서 마치 칼날 끝에 선 것처럼 균형이 잡혀있다고 과학자들은 고백하고 있다.[4-5] 따라서 이를 아는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생명이 유지되기에 적합한 이유들을 나열해 보면 헤아릴 수없이 많아서 이것을 우연의 소산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특별히 과학자들에게 지구의 대기에 왜 식물들의 성장에 필수요소인 질소가 78%이고 호흡하는 생물에게 없어서 안되는 산소가 21%이며, 이 대기의 성분 비율이 항상 유지되고 있는지 미스테리이다. 그런데 구약의 욥기(28)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기의 무게와 또 물의 분량을 정해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는 그(하나님)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대기)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욥기 28: 24-25)"

이 시간에도 총알처럼 빠르게 달리는 지구, 우리가 인식하든 안하든 상관 없이 이 특별한 행성 위에 모두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붙들고 계신 것이다.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1] Moody Science DVD, Wonders of God's Creation: Planet Earth, Moody Publishers, 1993.
[2] Cameron, A.G.W., Abundances of the elements in the solar system, Space Sci Rev 15:121-146, 1973.
[3] Anders, E. and Ebihara, M., Solar-system abundances of the elements, Geochim. Cosmochim. Acta 46:2363-2380, 1982.
[4] Murray, M.J. (1999), Reason for the Hope within (Grand Rapids, MI: Eerdmans)
[5] Strobel, L., The Case for a Creator: A Journalist Investigates Scientific Evidence That Points Toward God, Zondervan, Grand Rapids, MI., 2004

ACT News

18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

지난 1월 2-5일 나흘 간 18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가 감동 가운데 마쳤습니다. Grand Canyon, Bryce Canyon, Zion Canyon, Mojave 사막 등을 돌며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느 때와 같이 미국 각처에서 유학생들이 모였습니다. Illinois, Michigan, Wisconsin, New York, New Jersey, Texas, California, 한국 등에서 총 42명이 참석했습니다. 유학생 창조과학탐사는 다른 경우보다 훨씬 많은 질문이 등장하고 같은 기간 안에서도 세미나 횟수가 많습니다. 노아홍수, 지구의 나이,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지, 타협이론의 문제 등의 각 주제를 다룹니다. 참가자들은 세미나를 통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그 증거를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진화론에서 벗어나 성경으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지금 세상과 교회에 진화론적 사고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또한 이 상황 그대로 있으면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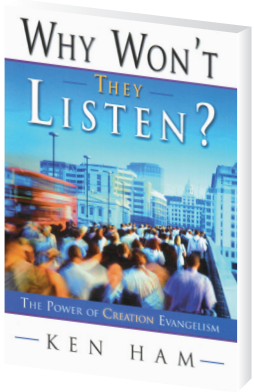
유학생 창조과학탐사

유학생 창조과학탐사를 매번 진행할 때도 그렇고 벌써 열 여덟 번을 거쳤다는 것은 창조과학선교회로서는 늘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미국 각 지에서 유학생들이 모였다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배우고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는 모습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후원이 이루어져왔습니다. 귀중한 손길을 통해서 $50라는 파격적인 참가비 만으로 가능하니 놀라울 뿐입니다. 후원해주시는 분께 감사 드립니다. 내년 1월에 19차를 기대합니다. 내년 2018년에도 1월 2-5일(화-금)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하시며 주위에 많은 유학생들을 준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8기 ITCM(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지난 12월 22일부터 시작된 창조사역집중훈련(ITCM)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ITCM은 창조과학 사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성경말씀과 다양한 강의, 참고자료들, 그리고 현장 체험을 통해 창조과학의 여러 주제들을 집중적이고 통합적으로 배웁니다. 10명의 훈련생들은 이곳 창조과학선교회에 도착한 이래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배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의 기원, 생명의 기원, 노아 홍수, 우주의 기원 등의 주제들을 이어가며 공부하고 있으며, 나눔과 발표를 통해 전하는 훈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마음 속에 있던 진화론을 제거하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과학적 증거들이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발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경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배우고 연구할 내용들이 정말 많다는 것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훈련생 모두가 이 기간에 잘 배워서, 담대하게 성경의 사실됨과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남은 훈련 일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발송



"왜 듣지 않는가?"를 읽고

이 책을 읽으며 느낀 가장 큰 것 하나는 나는 정말 많이 진화론에 젖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진화론을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품고 살아왔던 것이다! 책을 읽으며 어찌나 부끄럽던지… 한편으로는 청년의 때에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평생 모르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ITCM 8기 황은초*

얼마 전, 시험기간에 친구와 얘기를 하는 도중, 친구는 내가 창조과학을 공부하러 미국을 간다는 것을 알고는 "그냥 그런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였고 나는 "그럼 너는 진화론을 믿어?"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친구가 내게 한 말은 ITCM에 기대감이 없던 나에게 조금이나마 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는 "그냥, 창조는 그냥 설이잖아 설. 천지창조설." 마음속으로는 마냥 설이 아니고 진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창조과학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고, 내가 돌아와서 얘한테는 꼭 창조과학에 대하여 제대로 말할 수 있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출국을 했다. "Why Don't They Listen?" 은 이런 나에게 창조과학에 대한 간단하지만 확실한 설명을 해주었다. 나

스스로 가지고 있던 궁금증들, 그리고 아무 이유와 근거 없이 성경이라는 이유로 믿었던 부분들을 마냥 믿는 것보다는 제대로 알고 이해하며 배워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주었다. - *ITCM 8기 이찬양*

성경의 역사는 실제적인 역사와 성경 속의 모든 일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동안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 나는 성경에 적혀 있는 성경의 역사에 이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하면 용서해주시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타락 후에는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ITCM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이 되어 돌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 *ITCM 8기 윤조현*

창조과학을 하기 이전에 나는 진화론의 종착점인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다. 지금 하는 공부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꼈고 나아가 삶의 이유조차 느끼지 못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당연히 느끼는 감정이다. 결국 이 감정은 창조과학을 하고 성경이 사실임을 알게 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며, 내가 왜 창조과학을 해야하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하게 된 시간이 되었다. 내 삶 곳곳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이 저의 비전이다. - *ITCM 8기 류운선*

나는 지금까지 자라 오면서 진화론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부모님과 성경 말씀을 배우고 교회와 학교에서 성경 공부, 교리공부를 하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졌었고, 오히려 창조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온 그룹 2의 성향을 통해 현재 대부분의 많은 세대들과 상황들이 그룹 2의 유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창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지 않을 뿐더러 자신감도 없고,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피한다는 것에서 딱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 *ITCM 8기 김민영*

Ken Ham은 이 책을 통해 세계의 전반적인 상황이 진화론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파괴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복음의 3가지 요소를 1. 창조주, 죄와 죽음, 2. 예수의 죽음과 부활, 3.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 책에서는 1번을 Foundation이라고 말하고 있다. 창조복음 전도가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회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처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초를 전하지 않으면 싸울 수 있는 기반조차 없어지게 된다. – *ITCM8기 최원영*

창세기가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성경의 역사는 실제의 역사가 아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와 닿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타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오신 후반부의 부분적인 스토리만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ITCM 8기 채수현*

대중은 교과서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지언정 교과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내용이 모두 사실에 기초했을 것이라는, 왜냐하면 설마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겠는가 하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아주 합당한 추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교육'은 굉장한 영향력을 지닌다. 특별히 진화론은 공교육 내의 '과학'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창조과학을 접하기 전, 이미 '과학적 사실'로 둔갑한 진화론을 만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기독교의 창조론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 수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이다. - *ITCM 8기 윤예원*

이 책을 읽으면서 다음 세대에게는 교회 밖보다 교회 안의 소리 없는 진화론자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교과과정에 의해 자리잡은 과학이란 이름의 진화론이 창조론을 공격해올 때, 창세기를 옹호함으로써 성경이 진실인 것과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창조론 전도법을 적용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참된 역사임을 믿는 내게 희망이 되었다. - *ITCM 8기 김경민*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창세기의 토양을 다져야 하며 우리는 이것을 7C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7C 방법은 창조-타락-홍수심판-혼돈-그리스도-십자가-성취로 이어지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자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창조론 전도인 것이다. 우리는 창조론 전도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화론적 토양을 없애고 창세기의 토양으로 바꾸어야 한다. – *ITCM 8기 이반석*

창조 다섯 째날,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을 행성들, 별들, 은하들로 반짝거리게 장식하신 다음 날,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일인 '생명' 창조를 진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living creature)을 번성하게 하라"(창1:20). 새에서 가축, 물고기에서 사람, 심지어 하나님 자신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모든 범위의 살아있는 것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렘10:10). 성경에서 생명에 대한 실제 정의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며 살아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생명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단서를 얻는다. 과학책들은 생명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DNA나 세포들 또는 화학반응으로 설명한다. 생물책은 살아있는 것이 무엇으로 구성되고, 그것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생명 그 자체가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정의를 내리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동물이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DNA와 세포는 여전히 사체에 들어있지만, 생명은 사라졌다. 생명은 무게도 없고, 측정도 불가능하다. 과학 도구들 너머에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러한 생명의 비물질적 속성은 생물학자들이 생명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주는 듯하다.

사실, 생물학의 생물 구분과 성경의 구분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성경은 식물을 생명체로서 묘사하지 않는다. 대신에 "푸른 풀(green things)"이라고 부른다(욥39:8). "생명체(living creature)"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시고 이틀이 지나서야 성경에 나타난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창1:21). 하늘과 바다와 땅에 사는 놀라운 동물들이 생명체로 기록된 전부이다.

이 신기한 생명은 어디에서 온 걸까? 우리는 죽은 동물에게 생명을 회복시켜줄 수 없고, 더더욱 무에서 생명을 시작할 수도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한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시104:30).

우리 주변의 풍부한 생명체들은 매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행17:28) – *The Creation Museum DVD, Life 중에서*

창조과학탐사

간증 / 18차 유학생 탐사

1/2~5, 2017

저는 Texas College Station 에 있는 Texas A&M 에서 박사과정으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부부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저희는 자립적으로 유학생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큰 은혜와 따뜻한 후원덕에 이번 유학생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탐사를 통해 무엇보다도 막연히 믿어왔던 창세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십 년 동안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성경공부를 하고 교회에 헌신 했던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스스로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진화론에 대해 그 논리와 타당성을 한번도 짚어보지 않았던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창조론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신화같은 이야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과학책에 나온 진화론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과학적 근거로 무장한 이재만 선교사님 덕에 이제는 창조론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저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였습니다. 실존주의라는 단어를 들어 보긴 했지만, 세미나를 통해 그 뜻을 알게 되었고, 제 자신에 비추어 생각해보니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의 자유와 의사를 존중한다는 마음으로, 그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저 또한 언제나 'It is up to you, I do not care, I can tell you if you want' 식으로 마음에 담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다른 사람들이 저를 판단할 때 더 쿨하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여겨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기 싫고 저 또한 불편해지는 것이 싫었던... "좋은 사람" 콤플렉스인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저는 죄인이기도 하지만 거짓말쟁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 아니라고 여긴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제 삶을 채우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 즉, 예수님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 저는 정말 나쁜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니면 제가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에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느 것이든,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삶의 방식에 대해 스스로 "이 방법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순간, 그것은 마치 정말 "맞는" 방법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자기 개발서들 … 이것이 담고 있는 건, 그저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거기에서부터 파생된 것들이죠. 저는 그저 삶과 사고 방식 또한 유행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질문이 계속 저의 머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들이 어느 하나 정말 맞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따라야 하는 절대적 가치 – 그것이 성경에 모두 나와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 어떤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유지하며 지내온 것 같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이번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많은 자극과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몇 가지 결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앞으로 성경에 대해 사실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성경의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내용들에 대해 따져보려고 하기 전에, 그것이 사실이 아닐까봐 두려워, 이성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 말씀대로, 만약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으므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항상 제 자신이 앞에 있었고, 제 계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왔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진심으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개정과 사회 인식 변화를 향한 기도와 헌신을 하겠습니다. 거짓된 진화론을 아무 여과없이 배워왔다는 사실이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진화론에 맞서고자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 동안 제 신앙의 굴곡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기회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움 주신 후원자님과 선교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증은 Homepage(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역일정

2017 ACT Schedule

12/22-2/18	제 8 기 ITCM
2/1-9	창조과학탐사 (은평교회), 이재만
2/20-26	창조과학탐사 (인천동춘교회), 이재만
3/30-4/7	창조과학탐사 (연합팀), 이재만
4/8-14	창조과학탐사 (생터성경사역원), 이재만
4/16-22	창조과학탐사 (높은뜻푸른교회), 이재만
4/23-27	창조과학탐사 (하늘샘교회), 이재만
5/1-7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1), 이재만
5/9-16	창조과학탐사 (서초충신교회), 이재만
5/18-24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5/28-6/1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6/4-9	창조과학탐사 (대전온누리교회), 이재만
6/12-20	창조과학탐사 (기쁨의동산교회), 이재만
6/21-25	창조과학탐사 (합동신학원), 이재만
6/26-7/2	창조과학탐사 (안양석수교회), 이재만
6/26-28	창조과학탐사 (미주한인예장 남가주노회 EM), 김선욱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